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미 사 시 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 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알 림

- 8월 19일·20일 주일 미사 중 가톨릭신문 홍보가 있습니다.
- 다음 주(8월 27일)는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청소년 분과

- 청년 여름 캠프
 - 일 시 : 8월 26일(토) ~ 27일(일) 1박 2일
 - 장 소 : 워터플레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 비 용 : 5만원
 - 입금계좌 : 카카오�뱅크 3333-12-9719040 신연미
 - 문 의 : 신연미 가브리엘라 010-7599-3239

● 전입교우 만남의 시간 (6월/7월 전입)

- 일 시: 8월 27일(일), 교중 미사 후
- 장 소: 1교실

※ 각 구역·반장님은 연락하시어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 역 반	성 명	세 례명	이전 본당
6구역 6반	임민하	미카엘	서울대교구/구로2동
14구역 3반	이상우	미카엘	대전교구/세종성프란치스코
15구역 3반	정춘분	마리아	서울대교구/구로2동
22구역 4반	마윤근	베드로	서울대교구/수색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성체조배회	8월 쉽니다.	

● 회 의

- 사목협의회
 - 일 시 : 8월 31일(목), 19시 40분
 - 장 소 : 강 당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주일(8/27)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8월 쉽니다.	청 소	20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8월 9일~ 8월 15일)

• 교 무 금		6,485,000원
• 주일헌금		4,814,000원
• 성모승천 대축일 헌금		4,580,500원
• 감사헌금	김시아10만원 장원재10만원 정승우15만원 김승하10만원 심점순 5만원 영경애10만원 이우선20만원 이길자 6만원 이윤길10만원 박홍민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8/20	최경희	심재순	도현만	김진수	장희석	안상록	손정주
8/27	이영민	오성환	신종구	김영균	유숙종	장익근	민옥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8/20	장인홍	오광운	최창열	황대영	옥윤필
8/27	최승일	이운영	옥윤필	김광수	김인기

화답송



하느님 - 모든 민족들 - 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찬미 받으소서” -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14. 그래서 저는 우리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관하여 새롭게 대화를 나눌 것을 긴급하게 호소합니다. 모든 이가 참여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환경 문제와 인간이 일으킨 그 근원은 우리 모두에게 관련이 있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생태 운동은 이미 오랫동안 발전을 이루어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단체가 수립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환경 위기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많은 노력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심 부족 때문입니다. 신자들 가운데에서조차도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문제 자체의 부인과 무관심, 냉정한 체념이나 기술적 해결에 대한 맹목적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보편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는 남아프리카 주교들이 말한 대로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인간이 저지른 피해를 복구하려면 모든 이의 재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신의 문화, 경험, 계획, 재능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피조물 보호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15. 저는 이제 교회의 사회 교리에 새로 추가되는 이 회칙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규모와 긴급성, 그리고 매력을 인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재 생태 위기의 여러 측면을 간략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오늘날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그러한 결과가 우리 마음 깊이 다가오게 하고, 이에 따른 윤리적 영적 여정을 위한 구체적 기초를 마련해 주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나오는 몇 가지 원칙을 성찰하여 볼 것입니다. 이는 환경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좀 더 일치된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상황의 뿌리를 찾아 그 증상만이 아니라 그 가장 깊은 원인도 성찰해 볼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고유한 자리와 우리가 주변 환경과 맺는 관계를 존중하는 생태론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에 비추어 저는 대화와 행동을 위한 폭넓은 제안을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든 개인이 관련되고 또한 국제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변화가 동기 부여와 교육 과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확신으로 그리스도교 영성 체험의 보좌에서 영감을 얻은 인간 발전을 위한 지침을 제시할 것입니다.